



팜파스 어린이 30

# 만나자는 약속보다 로그인이 더 편해!

현실보다 온라인 세상이 더 좋은  
어린이를 위한 친구 관계 맺기

박서진 지음, 김다정 그림  
팜파스 펴냄 | 119쪽 | 값 10,000원 | 초등 중학년

## 책소개

“현실에서는 아싸, 사이버 세계에서는 인싸!”

이 책은 어린이 친구들에게 온라인 공간에서 맺는 친구 관계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 줍니다. 가상 세계에서 맺는 인간관계의 특징과 유의할 점을 알 수 있어요. 지나치게 온라인 친구를 향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에는 현실에서 맺는 친구 관계를 향한 욕구가 자리한다는 것을 알려 줍니다. 현실에서도 가상 세계에서도 즐겁게 재미있게 친구를 사귀는 것에 대해 알게 됩니다.

## 독후활동 주제망

온라인 가상 세계에서  
친구를 사귀는 법

온라인 세상에서 놀고 친구를 사귀기 쉬운 이유

현실 VS 온라인 인간관계의 특성을 알아보다!

연결된 두 세상에서  
즐겁게 친구를 사귀는 방법 알아보다!

● 책 읽기전에 해보세요!

책을 읽기 전에 이 책의 앞표지와 차례를 보고 다음 물음에 답해보세요.

1. 앞 표지의 그림의 느낌이 어떠한가요? 또 그런 느낌이 드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

---

---

---

2. <만나자는 약속보다 로그인이 더 편해!>라는 책의 제목을 보았을 때 떠오르는 나의 경험이 있나요? 있다면 어떤 경험인가요? 그때의 감정을 적어 보세요.

---

---

---

---

3. 이 책의 차례를 나란히 써보면, 오른쪽과 같은 내용이 됩니다.  
이 차례를 살펴볼 때, 이 책에서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서 어떻게 전개가 이루어질까요?  
줄거리를 예상해 간단하게 적어 보아요.

---

---

---

---

유령 퇴치 게임 세계로 로그인!  
친구 사귀기가 이렇게 쉽다니  
학교에서는 '아싸' 인터넷에서는 '인싸'  
돈부터 부치라고?  
먹튀를 당해 버렸다!  
닉네임 '공룡'과 강우현 중 어떤 게 진짜 나일까?  
작은 용기를 내어 현실을 보면  
온라인 속 숨은 친구 찾기!  
현실 친구와 관계를 맺어 간다는 것!  
연결된 두 개의 세상에서 진짜 나로 있으려면

● 책을 읽으면서 질문해보고 다음을 적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세요!

## 등장인물 이야기

다음은 《만나자는 약속보다 로그인이 더 편해!》에 나오는 주요 인물들입니다.  
책 속 등장인물의 성격과 특징을 파악해서 써보세요.



우현

Two horizontal white lines for writing notes.



튀튀

Two horizontal white lines for writing notes.



혜슬

Two horizontal white lines for writing notes.



환이

Two horizontal white lines for writing notes.

● 현실 친구 VS 온라인 친구 나는 어떤 관계가 더 좋은가요?

1. 우현이는 콤플렉스로 인해서 친구를 사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자신을 놀릴까 봐 걱정하기 때문이지요.  
이처럼 현실에서 친구를 사귈 때 어려운 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나요?  
자신의 경험과 느낀 점을 적어보세요.

---

---

2. 혹시 친하게 지내는 온라인 친구가 있나요?  
그 친구를 사귀게 된 계기와 어떤 점 때문에 더 친해지게 되었는지 이유를 적어보세요.

---

---

3. 나에게 고민이 생긴다면, 현실 친구와 온라인 친구 중 어느 친구에게 더욱 말할 것 같은가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



● 온라인 세계에서 나는 어떤 '나'인가요?

1. 온라인 세상에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활동하나요?

닉네임을 적어보고 그 닉네임을 쓰는 이유를 이야기해보세요.

또한 온라인에서 쓰는 말투와 자주 어울리는 친구의 이미지는 어떤지도 이야기해보아요.

---

---

2. 가장 친한 현실 친구와 온라인 친구들은 나에게 대해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

현실의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면서

관계를 맺을 친구는 현실 친구와 온라인 친구 중 어떤 친구인가요?

---

---

환이의 말도 기분이 나빴지만, 내가 거칠게 대꾸했다고 해서 마구 후련하지도 않았다.  
게다가 하마터면 학폭까지 일으킬 뻔했다.

'아까 나는 왜 그랬을까? 진짜 '공룡'이 되어 버린 것 같았어.'

게임 세상 속에서 날아다니는 '공룡'은 분명 내가 맞다. 하지만 그게 평소 조용하고 소심한  
나와 같지는 않다. 게임 세상 속 '공룡'과 지금 '강우현' 중에

어느 쪽이 진짜 내 모습일까? 나도 헷갈린다.

3. 온라인 세상에서의 나와 현실 세상의 나는 어떤 모습인가요?

우현이처럼 다른 모습이라면 각각 어떤 특징을 가진 모습인지 적어 보세요.

---

---

4. 가끔 온라인의 나와 현실의 내가 혼동될 때가 있나요?  
있다면 그 경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보아요.

\_\_\_\_\_

\_\_\_\_\_

● 실체가 없는 온라인 속에 숨는다면 어떻게 할까?

[나한테 기막힌 망토가 있는데 살래?]  
망토라고? 그렇지 않아도 갖고 싶었던 건데.  
[얼만데요?]  
[5만 원 하는데, 그냥 3만 오천 원에 줄게.]  
5만 원짜린데 3만 오천 원에 준다고? 모아 둔 용돈을 탈탈 털면 될 것 같긴 한데, 너무 큰돈이다.  
[안 살 거면 말고. 다른 애한테 팔면 5만 원 다 받을 수 있어.]  
[잠깐만요! 그런데 어떻게 사는 건데요?]  
[네가 돈을 부치면 망토를 넘겨줄게. 너 매일 이 방에 들어오지?]  
[네.]  
[그럼 통장 번호 알려 줄게. 돈부터 부쳐.]  
아이디가 '안개'이고 자기는 대학생이라고 하며 통장의 계좌 번호를 알려 주고  
게임방에서 나갔다. 나는 모아 둔 돈을 확인하려고 저금통을 열었다. 다행히도 3만 오천 원은 있었다.

1. 게임 방에서 처음 만난 '안개'가 어떤 인물인 것 같나요?  
우현이가 안개의 제안에 대해 어떻게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_\_\_\_\_

\_\_\_\_\_

2. 만일 우현이가 돈을 부친 다음에 안개가 망토를 보내지 않고  
게임방에 들어오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_\_\_\_\_

\_\_\_\_\_

[막말은 애들이 먼저 했거든! 괜히 친한 척하지 마!]

나는 갑자기 나타난 유령에게 화살을 쏜 뒤 아예 휴대폰을 꺼 버렸다.

게임에서 나오니 뭔가 텅 빈 것 같았다. 다시 혼자가 된 느낌이 확 들었다.

로그아웃을 하는 순간 게임 속 친구들도 다 사라져 버렸으니까. 게임 세계의 친구는 사귀는 것도 쉬웠지만 헤어지는 것도 너무나 간단할 것 같다.

그런데 이상한 건 내가 스스로 그 관계를 끊어 버릴 생각을 하는데도 마치 내가 배신당한 느낌이 든다는 거다.

3. 우현이는 온라인에서 가장 친했던 친구와 너무 허무하게 관계가 끊어지고 맙니다. 우현이와 같은 경험을 한 적이 있나요? 만일 있다면 그 경험과 감정은 어땠는지 적어 보세요. 만일 없다면 우현이가 어떤 감정을 느낄지 적어 보세요.

Four horizontal white lines for writing inside a light blue rounded rectangular box.

● 연결된 두 세상에서 즐겁게 친구를 사귀려면

우리는 종종 온라인 세상 속 인물도 현실을 살아가는 한 사람이라는 것을 잊고는 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말하거나 쉽게 관계를 맺고 끊기도 하지요.

온라인 세상에서 친구를 사귈 때 지켜야 할 예절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Four horizontal white lines for writing inside a light blue rounded rectangular box.